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 30일 본회의 보고

'2021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서 표결
윤 정부 세번째 야당의원 체포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4건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올해 3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반면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노 의원과 이 대표에 이어 윤·이 의원이 세 번째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가운데)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상임위원장 교체 앞 '고민'

정청래 '당직과 겸직'·'탈당' 윤관석에 비판적 시각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뤄지는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1년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상임위원장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곳곳에서 변수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상임위는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중 과방위를 제외한 여섯 곳이 민주당 몫이다.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방위 위원장은 여당에 내주고 행안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다.

그런데 이 행안위원장이 원내지도부 고민 중 하나다. 현재 정 최고위원이 자연스럽게 행안위로 옮겨 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제가 상임위원장직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법도 없다"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제는 당직을 맡은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 최고위원이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때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며 같은 내용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을 제시하며 "법보다 관례가 우선시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상임위원장 인선의 또 다른 뇌관은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산자위다.

국회법에 따른다면 윤 의원이 2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맞지만 아직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중진들이 있는 만큼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박범계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25일 "윤 의원은 정무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직을 더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윤 의원이 탈당한 탓에 원내지도부의 방침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윤 의원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버티기'에 들어가면 상임위원장을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연합뉴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사무총장·차장 동반 사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특혜 의혹 대상이 되어 온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돼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은 모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총장 자녀는 2022년 선관위에 들어와 전남 강진군 선관위에서 근무 중이며 송 차장 자녀는 2018년 채용돼 충북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자녀 채용 특혜 의혹까지 터지며 지난해 3월 사퇴한 바 있다.

김 전 사무총장 자녀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인천 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고, 미국 출장 기회 등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선관위는 특혜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여권의 거센 비판에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하게 됐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 20대 가장 많아"

윤영덕 의원 "청년 짐 덜어줘야"

20대들이 '햇살론' 대위변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빚 지지 않고 사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25일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햇살론이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햇살론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교적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햇살론 대위변제 총액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1조3773억 원에서 2021년 말 1조9228억 원(전년 대비 5455억 원 증가), 2022년 말 2조6076억원(6848억 원 증가), 올해 1분기에는 2조8175억 원(전년 말 대비 2099억 원 증가)까지 증가했다.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 수를 보면, 2023년 1분기에 20대 이하가 1만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114명 순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대위변제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이 20대라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빚을 지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명품 매장 가맹점 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전북(전주)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뽀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중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용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